

2020년 12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14호

수고했어 울해도.
내일은 더 좋은날이
우리에게 다가올거야

- 1. 통영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 2. 온라인 마을축제 소식
- 3. 합천평화교 - 사회적경제학습공동체
- 4. 아듀! 2020. 마을교육공동체

TOP NEWS

통영행복교육지구 13번째 미래 교육의 길을 열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021. 통영행복교육지구 및 통영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업무 협약식을 11월 19일(목) 오후 3시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통영행복교육지구는 경남교육청과 통영시가 학교, 지역사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사업으로, 경남 18개 기초지자체 중 13번째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양 기관은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학생 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앞으로 '통통(統通)한 통영행복교육지구'는 2021년부터 2년간 예산(각 3억)과 인력 등을 대응투자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교육 확산을 위하여 통영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행복교육지구, 온라인 마을축제를 열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김해 행복교육 마을 축제!
어반스케치, 팝아트, 놀이, 마술 등 다양한 강좌를 집에서 즐겨요!



#축하공연 #오케스트라 연주 #치어리딩

남해 보물섬온라인 행복축제,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다육화분, 마스크 목걸이, 라탄 바구니, 바다 방향제 만들기 등 남해군 학생, 학부모, 지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동네아이들이들린친구들 #상주소 08밴드

합천평화고의 사회적 경제교육을 소개합니다

- 평화고등학교 교사 이민우 글

합천평화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작년 한 해 동안 '학교협동조합 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실험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교육 이론과 실재를 경험하였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공동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평화고는 자조, 자립, 협동의 협동조합 이념을 교육과정 속에서 구현해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학생사회적경제 (특강)교실

그러나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침이 많은 한해였다. 잦은 학사일정 변경은 물론 원격수업과 학부모의 학교출입 제한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학생 사회적경제교실' 운영을 통한 학생 재교육을 중심으로 내실을 꾀하였다.

학생주도의 사회적경제 동아리 카페 '휘' 운영

합천평화고등학교는 합천군 적중면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이자 대안학교이다. 평화고에는 학생들이 꾸리는 협동조합 동아리 카페 '휘'가 있다. 카페 '휘'는 처음 학생매점을 운영해보자는 학생들의 모임 중 한 참여학생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순수 학생 주도의 동아리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협동조합카페 운영

카페 '휘'는 원래는 교장실이었던 공간을 교장선생님께서 내어 주고 동아리 구성원들이 초기 자본을 모아 시작하여 학교협동조합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리모델링하였고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 경제 교육의 실습장으로 거듭나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모태조합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친환경 대안장터 '적중 느낌장' 운영

평화고는 2016년 11월 19일을 시작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 창업이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친환경 대안장터인 '적중느낌장'을 개장하였다.



지역사회연계 대안장터 (우리동네 문화놀이터)

'적중느낌장'은 SNS 공간인 밴드를 만들어 홍보하고,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장터를 운영하는 민주적 소통과 수평적인 관계 형성으로 함께 열어나가는 문화를 바탕으로, 무너진 농촌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에만 집중된 사회에 학생들 스스로가 친환경 제품과 농산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생산과 판매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장을 통해 창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경험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성장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상상을 현실로 '상상나래 운영'

합천평화고등학교는 창업공간제공과 자유로운 창업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적중느림장', 카페'휘' 운영의 재교육의 장으로 '상상나래'를 활용하고 있다. 그 주요 이벤트로는 창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누구나 강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인 상상나래 작업장을 운영하고 이 공간을 이용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주제로 다양한 창업관련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달달이벤트,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의 장(학생주도형 강의진행)인 살포시강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생 인터뷰

마지막으로 2학년 학생 2명에게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교육(학교협동조합교육)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학생사회적경제교육실(발표)

1. 나에게 사회적경제교육(학교협동조합교육)이란?

박○○ - 함께 매일 얼굴을 보고 살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구와도 관계를 달고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한 학교, 그 속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 번 나를 붙잡고 나를 달라지게 한 것도 카페 '휘' 활동이다.

내가 수업으로만 공동체를 배웠다면 어땠을까. 다소 내성적이고 나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나에게 몰두할 일과 그것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준 협동조합활동이 내게는 고마움이고 배움이 아닐까 한다.

2. 협동조합 '같이의 가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신○○ -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그 활동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게는 학생참여를 통한 복지향상과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교류 확대를 통한 연대와 참여를 배우고 공동체의 확장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배움공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고민하고자 한다.

안녕 ~ 2020 행복교육지구는 어땠을까?

담당 실무자에게 듣는 올해의 행복교육지구 이야기



1. 행복교육지구 담당 실무자로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 : 2년 간 부족한 능력이지만 보물섬 남해 행복교육지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꾸러나가는 꿈빛학교 활동에서 학생들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기록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가장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 처음 파견교사로 근무하는 것도 낯설었고, 코로나 19라는 상황 속에서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 2020년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도전이었고, 아쉬움이 가득한 한해 였습니다.

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원청과 시청, 지역민이 함께 하는 여러 활동을 보며 저 스스로 뿌듯한 한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2.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 제일 잘되었던 사업과 아쉬웠던 사업이 있다면?

김 :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20년 9월 재택격리에 지친 가정을 위해 지원하였던 보물섬 한가위 행복드림프로그램(비대면 체험)과 12월 군청과 함께 협업하여 추진한 보물섬 온라인 행복축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온라인 행복축제에 참가한 학생에 따르면, 그들의 공연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자랑거리와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 행복교육지구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지 못했던 점입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 코로나 19 상황에도 소규모로 27개의 마을학교 운영하여 마을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것과 온라인 마을결합형 체험 꾸러미 제작으로 학교 수업등을 지원해 드릴 수 있었고 호응도 좋아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지 많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3. 내년의 계획이나 다짐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 :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본연의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 이번에는 코로나 19를 대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플랜 B도 준비해서 준비한 모든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싶어요.



도전! 행복교육지구 6행시

행동하는 자들의
 복을 짓는 만남과 활동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
 육감을 활용하여
 지고지순의 교육을 향한
 구름판 같은 역할입니다.
 (하동 회복적 마을교사 고경남)

행복한 교실.
 복이 있는
 교실에서
 육성하는
 지구촌 인재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복교육지구입니다.
 (상주중학교 1학년 박승주)

행님아!
 복어국 어땡노 오늘같은 날씨에!
 교실의 마을샘들과 함께 가자
 육교밀에 그 초가집!
 지도에도 나오더마는.
 구글에도 오늘 땃드라!
 (경남도의회 김영진의원)

행복은
 복권처럼 찾아오네
 교실에 앉아 수업하고 싶어하신
 육남매를 키우신 어머니는
 지금도 학생처럼
 구구단을 외며 행복해하시네
 (진해장천초등학교 학부모)

행복한 웃음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교실 속 수업
 육십분은
 지루한 틈 없이
 구경꾼이 아닌 배우의 주체
 (한들산들협동조합 대표 이순자)

행복교육지구가 뭐고?라고 물어 본다면 저는
 복 받은 지역이라고 답합니다. 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금 교육공동체가 협력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행복교육지
 구가 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는
 날을 간절히 꿈꿉니다.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 김재훈장학관)

행복합니다.
 복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육과 마을이 만나면서
 육신은 힘들었을지라도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희망이 생겼어요.
 구름이 끼더라도 헤쳐가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보아요. (교육연구정보원 곽형준)

♡마을교육공동체 소식지가 발행된지 벌써주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시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낌없이 들려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식지! 너 축하해, 짹짹

- 서로 만나 공유하는 에너지가 무엇보다 크지만 어쩔수 없는
 언택트 시대에 소식지로나마 우리 주변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산희망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신수진 대표)

-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배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에는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도록 응원합니다.

(하동 토요일학교 팜하우스&작은도서관 정주용 마을교사)

- 한담(큰뜻담고) 이담(다름도담고) 지담(지혜를담아) 월담(경계가 없는)
 멋진 소식지! (함양 백전초 다함께사이좋은 마을학교 이희정 대표)

- 내년엔 코로나19 없는 날들로 서로 마주보며 건강하게 만났으면 해요.
 (진주 금산꿈샘마을학교 곽은하 대표)

- 올 한해도 마을선생님들이 있어 행복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비대면 체험키트 제작해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둔덕중학교 청마을학교 변지원 교사)

- 소식지를 통해 학교와 마을, 학생과의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의 창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주 소확행마을학교 곽은정 마을교사)

- 성취감 없는 교육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배가시키는 마을학교, 마을교사가 최고입니다. 모두 힘내요!

(사천목공학교 김동주 마을교사)

-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나 현장에서 아이들의 달라지는 모습, 행복한 미소를
 본 저는 행복교육지구의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은 수고스러움의 결과를
 느낍니다. 마을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남마을교육공동체의 더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천 원예치료 전명주 마을교사)

- 올 한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행복한 교육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마을안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소문날마을학교 강신영 마을교사)

-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들로 항상 곁에서 함께 해주는 마을교육소식지가
 10년, 20년.. 계속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풀잎교육공동체 이난이 마을교사)

- 2020년 뜻하지 않은 위기로 힘든시기를 보냈지만, 위기는 또다른 변화와
 기회의 발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이꿈이
 경남교육!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아이좋아! 정말좋아!
 덕분에~ 힘나요. (양산 화제초 곽동준 마을교사)